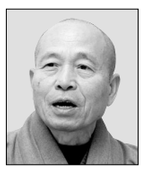
일 주 문



각성 스님 신년법문

각성 스님은 2월 12일 서울 선릉역 동보성에서 열리는 보명선원 신년법회에서 '한국의 미래와 불교'를 주제로 법문한다.



정각회 2월 정기법회

주경 조계종 기획실장 스님은 2월 1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리는 정각회 정기법회에서 '불교 기본수행법, 참선'을 주제로 법문한다.



대전 서구노인福, 설맞이 나눔

장곡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장 스님은 1월 25일 대전지역 독거어르신 80가구에 설맞이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생활참선 강좌 개강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2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전법회관에서 생활참선 강좌를 연다. (02)1661-1108

관음종 설맞이 숭인동 자비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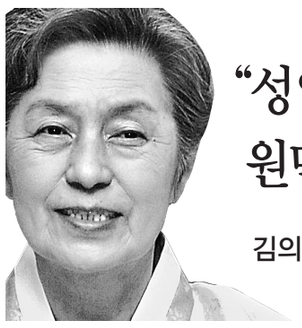
관음종 복지재단(이사장 홍파)은 1월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낙산 묘각사에서 숭인1,2동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 80가구에 쌀 1600kg을 전달했다.

홍파 스님은 "설날을 맞이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보직인사

△미래융합대학장 겸 미래융합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장 박선형 △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강재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겸 경영대학 부학장 이상현 △공과대학 부학장 겸 융합소프트웨어교육원 SW산학연구센터장 임대운 △일반대학원 교학부장 최연식 △불교대학원 교학부장 겸 불교대학 교학부장 지창규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겸 사범대학 교학부장 황인규 △다르마칼리지 교양외국어센터장 조윤오 △다르마칼리지 창의혁신소통센터장 곽문규

〈현불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성역화 불사 원만 성취 총력"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원만 성취와 함께 조계사 대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사가 한국불교 대표사찰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장소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1월 20일 제24대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김의정 신도회장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원력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2005년부터 7년간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23대 조계사 신도회장을 지냈다.

김 신도회장은 먼저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신도들의 협조로 원만 회향할 수 있었다. 향후 2년도 한 식구처럼 마음을 모아 성역화 불사 등 조계사가 당면한 과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재건 내걸고 24대 임원진 구축

김 신도회장은 특히 조계사 신도회 사무처 재건 등 신도조직 체계화에도 관심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신도회 고문에 이영희 · 지승동, 부회장에 박영환 · 송영란 · 김춘미 · 함정희, 지역본부장에 고재경, 포교사회본부장에 박종화, 소임본부장에 신지형, 사무총장에 김문주, 총무부장에 김진여심, 재무부장에 장성연 등도 임명됐다.

김 신도회는 "신도회 임원 임명도 함께 이뤄진 만큼 신도조직 체계화에 나서겠다. 가족과 같은 신도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도회장은 2013년 불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궁중다례와 궁중복식을 익히며 전통문화 복원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탈북민 불자 정착에 기여"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봉은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절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오랜 공석 끝에 맡은 자리인 만큼 신도회의 미래에 대한 각오가 다부졌다. 특히 한 회장은 봉은사에서 탈북민 불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소외받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법회 기회를 만들고,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싶습니다."

사찰 문턱 낮추고 소외계층 나눔 증진

한 회장이 앞으로 봉은사 신도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우선적 가치는 '즐거움'과 '보람'이다. 신도회가 즐겁되, 보람도 함께 찾을 수 있어야한단 의견이다. 한 회장은 "어느 조직이든 활성화를 위해선 회원들이 신명나게 즐거워야한다. 또 보람도 있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신도회원들 간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봉은사 인근에 건립 예정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계종은 최근 사찰 3,000곳에 서명지를 배포한 상태다.

한 회장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봉은사 신도회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원덕 신도회장은 현재 한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영영자(AMP) 교우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신년하례를 가졌다. 이날 예방에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종단 등록 신도단체장, 전국 교구신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를 받고 "불자의 긍지를 갖고 가족과 주변부터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포항북장애인福, 장애인 자비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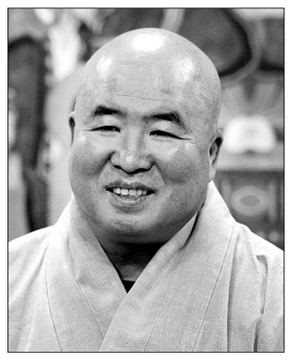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권순관)은 1월 24~25일 '희망담은 행복상자' 사업을 진행하고 저소득 장애인 150여 명에 설 명절 선물을 지원했다.

권순관 관장은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 프로그램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부산 사상구불교문화회관 건립 추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



"자비와 보시를 화두로 삼고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화합하며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1월 18일 부산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취임한 신임 회장 성문 스님〈사진〉는 자비 나눔에 더욱 진력하고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성문 스님은 세종대왕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예로 들며 "세종대왕이 천개의 강에 비친 달을 설명하며 백성을 사랑한 그 마음은 중생을 사랑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았다. 이처럼 사상구에 있는 지역민을 위해 마음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급식 등 나눔거점 활용 문화포교 적극 전개

아울러 스님은 사상구불교문화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문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찾아와 불교문화를 느끼고 접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문화회관에는 불교문화 포교뿐 만이 아니라 무료급식을 통한 나눔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1986년 청량사 주지 김성림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지역 사찰 41곳이 합심해 발족했다. 북구사암연합회로 출범했지만 1995년 3월 사상구와 북구가 분구되며 2011년 1월 사상구 소속 사찰 32곳이 모여 재결성했다. 그동안 사상구불교연합회는 국태민안 수륙방생대재를 봉행하고 논산훈련소 위문 등을 진행했다. 또 장학사업과 캄보디아 구호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취임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전 회장 유정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상갑 사상불교신도회 회장, 송숙희 사상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세계불교지도자 대법회 연다

대불총 3월 22일 개최계획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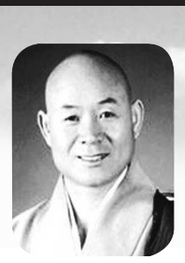
대한민국지키기불교총연합(이사장 박희도, 이하 대불총)과 국제불교문화교류진흥원(원장 홍을선)은 "국제적 경제위기와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한 사부대중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 세계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대법회를 연다"고 1월 23일 밝혔다.

오전 9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서 진행되는 대법회에는 중국 · 일본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미얀마 · 네팔 · 태국 등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스리랑카 전직 대통령인 마힌다 라자팍세를 비롯해 미얀마 전직 대통령 · 양곤불교대 총장 · 캄보디아 훈센불교대학장 등이 참석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